

목양칼럼

흔들리는 등지에 성한 달걀 없다

“자~자~~애들은 가요!”
 어렸을 적에 간혹 듣곤 했던 말입니다.
 누군가의 주위에 어른들이 몰려 있을 때,
 뭔가 궁금해서 저 같은 아이들도 까치발을 들고 그 안을 보려 했습니다.
 훗날 그들의 이름을 알았지만, 그 안에는 아바위꾼의 책상이 펼쳐있었고
 카드 석 장이나, 주사위를 조그만 공기 사발 세 개로 덮어가면서
 어느 하나에 돈을 걸게 했습니다.
 그런 사기 치는 모습을 애들에게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인지,
 사기 치는 것이 순수한 애들 눈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인지,
 아바위꾼 앞에서 바람 잡는 아저씨들이 “애들은 가라” 고 외칩니다.

애들은 가라고 했기에 망정이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저도 집으로 돌아와 카드나 주사위로 부단히 아바위를 연습하여
 잠시라도 그 바닥에 발을 들였을지 모를 일입니다.

애들은 보는 대로 배우고 따릅니다.
 폭력적 가정에서 폭력적 아이가 자라 무서운 어른이 되고,
 사랑의 가정에서 사랑의 아이가 자라 따뜻한 어른이 됩니다.

‘흔들리는 등지에 성한 달걀 없다’ 는 속담도 있습니다.
 달걀의 안전과 미래는 그 등지에 달려있음이 분명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정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나길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흔들리는 등지에 성한 달걀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이치라면
 무언가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탓하기 전에 부모 된 우리가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모는 아이들의 등지이니까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웅/K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팽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병화/중등부 (703)819-8785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학교부 (646)789-1118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O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직원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최진식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운 이송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이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5월 6일
 제 44-18호

주일예배 (1,3부) 어린이주일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10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남형욱 장로 3부 / 황인섭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사무엘하 18: 31-33	사회자
찬양	CHOIR	어린 아이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압살롬은 잘 있느냐?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563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59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사회자
* 표는 일어섬			

주후 2018년 5월 6일

주일예배 (2,4부) 어린이주일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채영주 장로 4부 / 차상남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563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2부/ 사무엘하 18: 31-33 4부/ 마태복음 6: 19-34	사회자
찬양 CHOIR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예수께로 가면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2부 / 압살롬은 잘 있느냐? 4부 / 21세기 크리스천: 돈	김성국 목사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예수 사랑하심은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새가족 환영회
제 1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아버이 주일
5/13(주)

전교인 한마음 축제
Belmont Lake Park
5/28(월)

2018 전교인 여름 수련회
7/2(월) -7/4(수)

수요 기도 예배

아론 / 사라 선교회 헌신 예배

오후 8:00 (5/9/18)	사회:장봉석 장로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이경자 권사
성경봉독	역대상 23:13 양정자 권사
말씀	오인수 목사

심히 거룩한 자, 아론

헌신찬양	아론/사라 선교회
찬송	421 다같이
헌금 기도	박순자 권사
광고	고국환 장로
합심 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5월 가정의 달 -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자녀 사랑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5/6(주) 어린이 주일 / 선교회 월례회	5/9(수) 아론 / 사라 선교회 헌신 예배	5/11(금) 구역 예배
5/13(주) 아버지 주일	5/14(월) 효도 관광	5/16(수) 특별활동위원회 헌신 예배
5/19(토) 제 12회 Ainos Youth Orchestra 정기 연주회		5/20(주) 가정의달 연합 예배

알림

- 효도 관광 안내** 1) 일시: 5/14(월) 오전 9:30 교회에서 출발 2) 장소: Bethpage State Park 3) 대상: 71세 (1947년) 이상, 등록 교인에 한함. 신청서는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 문의: 박정봉 집사
-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5/28(월)에 Belmont Lake Park 에서 있습니다.
- 선교 헌금** 춘계 친선 골프대회에서 \$2452.00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 올해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들은** 각 교구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여름 SAT Class 안내**
 - 대상: 본교회 9-12학년 2) 기간: 7/9 - 7/19 3) 가격: 무료 4) 정원: 40명 정원제 (선착순 등록)
 - 문의: Director 김도완: 347)210-1245
- 5/12(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60대 선교회 (다음주: 70, 80대 선교회)
- 가족기념 장학기금** 계미송 교우, Hung Dang 교우, 최재영 교우, 이해연 집사

새가족

김선경 (청장년 4F1) 송현림 (안나 1D4) Lee Sean (아굴라 1F6) 박현아 (청년선교 4Y2)

개업 김현철 집사 (이미셀 집사 2F2) 가정에서 'Tiffany Nail' 가게를 개업하였습니다.
주소: 349 Greenwich Ave. CT 전화: (203)661-3838

개업 이영순 교우 (3LN1) 께서 'Nu Home Care' 를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주소: 41-08 163 St. Flushing NY 11358

임명 김형섭 집사 - 유년부 부장

금식기도자

주 / Nancy, 黄应宏 林秀萍 栾德银 孙优定

월 / 崔春燕, 王振华 项漪 林秀萍 栾德银 孙优定

화 / 崔春燕, 王振华 林秀萍 栾德银 Su 孙优定

수 / 卫凤英, 孙雅莉, 张梅 崔若琴, 陈丽华 Sandy Yang, 马玉珊, 司娟娟, 石岩

목 / 马玉珊 卫凤英, 孙雅莉, 张梅 崔若琴, 陈丽华 Sandy yang, 马玉珊, 司娟娟, 石岩, 董娜

금 / 卫凤英, 孙雅莉, 张梅 崔若琴, 董爱珍, 陈丽华 Sandy yang, 马玉珊, 司娟娟, 石岩, 董娜

토 / 田新春, 伍李宝珠 LuMan 伍秀琴, 张翼洋, 杨起, 乔雨薇, 王媛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아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아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09	러시아어 예배	26	영아부	38	중등부	55
2부 예배	380	청년 선교부	79	유아부	38	고등부	47
3부 예배	327	QBC	237	유치부	39	청년 대학부	46
4부 예배	141	새벽 예배	861	중국어 교육부	20	교회 학교 예배	445
영어 예배	161	수요 기도 예배	192	유년부	93	주일 낮 장년 예배	1721
중국어 예배	298	새가족 환영회	14	초등부	69	주일 낮 총계	2166

5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차상남 장로

헌신기도	황주현 장로	장봉석 장로	고국환 장로	최원일 장로
책임권사	조목환 권사	김청자 권사	이성은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준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준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에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리아, 바울 주일식사: 브리스가(다음주: 마르다)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퀀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4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금주의 가정예배

2018년 5월 첫째 주

문답 40 문 :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답 :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 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38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7:12-17

아버지 야곱의 말을 따라 요셉은 세겔에 양을 치는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형들이 다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세겔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형들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 보고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15절)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6절) 그러자 그 사람은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요셉이 팔려가는 데에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만약에 이 때 이 사람에게서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아마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때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그 때 잘했더라면...” “그 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28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7:18-24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동생 요셉을 보고 그를 죽이기를 꾀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20절) 이미 과거에 세겔에서 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였던 전적이 있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형제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주도면밀합니다. 요셉이 미웠던 한들 지금 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이 정당하다 할 수 있는가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의 미움은 과연 정당한가요? 혹시 상대방의 모습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상대방의 잘못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인식하며 자신을 더 겸손하고 솔직하게 들여다 보는 삶을 삽시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278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7:25-28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잘못했어요 형들,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팔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는 그를 외면하고, 은 이십을 손에 쥐는 형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요셉은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

다. 형들이 죽일 만큼 미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그만큼 상처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야만 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93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7:29-36

본문에서 아주 악하고 못된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을 팔아 놓고는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부르는지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32절) “우리 동생 요셉” 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식적으로 아들을 잃어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35절)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여서도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역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늘 스스로가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68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9:1-6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게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형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337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창세기 39:7-18

요셉이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심으로만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